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⑤ 06. ⑤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④ 14. ③ 15. ③ 16. ① 17. ② 18. ③ 19. ④ 20. ④

1. 메타 윤리학과 응용 규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 파악

정답 해설 : (가)와 관련된 윤리학은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시하는 메타 윤리학이며, (나)와 관련된 윤리학은 안락사, 임신 중절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규범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ㄴ). 응용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실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이론 규범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 ㄷ. 기술(記述)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2.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 인정을 강조하는 정보 사유론, (나)는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 인정을 비판하는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정보 공유론은 정보 사유론에 비해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정도(X축)는 낮지만, 정보의 공유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도(Y축)는 높다. 그리고 정보 공유론은 정보 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가능성 정도(Z축)는 높다. 이러한 상대적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⑤ ㉠과 ㉡은 지적 재산권 보호 강조 정도가 높은 지점이므로 정보 공유론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은 정보의 공유재적 성격 강조 정도가 낮은 지점이므로 정보 공유론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은 정보 격차 완화 가능성 정도가 낮은 지점이므로 정보 공유론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3.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노자" 8장의 내용으로, 도가 사상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도가 사상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上善若水]'이고, 물의 여러 모습은 도(道)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러한 도가 사상은 분별적 인식에 따른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며, 무욕(無欲)의 소박한 삶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유교 사상이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 ③ 불교 사상이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 ④ 유교 사상이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신독(愼獨)'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을 말한다.
- ⑤ 유교 사상이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거경(居敬)'이란 항상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엄숙하게 함으로써 덕성(德性)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4. 인체 실험 찬반 논의의 근거 파악

정답 해설 : 정리된 삼단 논법에서, 소전제 ㉠에 들어갈 진술은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가 된다. 따라서 이 진술에 대한 적절한 반론은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 아니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론을 가장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된다. 여기서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인체 실험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자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이 포함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④, ⑤ 소전제를 지지하는 진술이다.
- ③ 인체 실험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이므로, 간접적으로 소전제를 지지할 수 있는 진술이다.

5.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민주주의, (나)는 민본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정치 이념이며, 민본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뿌리라는 민본(民本)과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위민(爲民)을 중시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본주의는 통치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장점이 있지만 백성이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 활동에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자는 통치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는 긍정, 민본주의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④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 사형 제도에 대한 루소, 칸트, 벤담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루소, 을은 칸트, 병은 벤담이다.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ㄴ)에 대하여 응보주의자 칸트는 '예'로, 벤담은 '아니요'로 대답할 것이므로 ㄴ의 질문은 적절하다. 벤담은 칸트와 달리 형벌을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공익 증진의 수단으로 본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ㄷ)에 대하여 칸트는 '예'로 대답할 것이므로 ㄷ의 질문은 적절하다.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결코 그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인격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ㄷ)에 대하여 벤담은 '예'로 대답할 것이므로 ㄷ의 질문은 적절하다. 벤담은 형벌이 공리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루소와 칸트 모두가 '예'로 대답할 질문이다.

7. 형제자매 간의 도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며, (나)의 ㉠은 전통적으로 형제자매 간의 도리로 강조되어온 '형우제공(兄友弟恭)' 또는 '우애'이다. 형우제공 또는 우애는, 형제자매 간의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고(ㄴ), 사회적 장유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되며(ㄷ),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효(孝)를 실천하는 한 가지 길이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형제자매는 향렬이 같은 사람들이다.

8. 전통 혼례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전통 의례는 혼례(婚禮)이다. '사모관대(紗帽冠帶)'와 '나무기러기[木雁]', '새로운 사회관계를 이루게 된다.' 등에서 혼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 혼례는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후손을 낳아 집안을 이어 가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상례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전통 사회에서 행해졌던 '책씻이'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冠禮)에 대한 설명이다.
- ⑤ 향사례(鄉射禮)와 관련된 설명이다.

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긍정하면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강연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첫째, '기업은 취약 계층의 삶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ㄱ) 왜냐하면 강연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은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환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ㄴ) 왜냐하면 강연자는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역 복지 사업, 약자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ㄷ) 왜냐하면 강연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윤 추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강연자는 기업이 전체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 과학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과학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을은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과 함께 그 연구가 초래할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는가?'의 질문에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③, ④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1. 순자와 플라톤의 직업관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순자, 을은 플라톤이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면서도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禮)를 요청하였다. 그는 직업 활동을 통한 욕망의 적절한 충족을 주장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플라톤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폴리스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 ③ 순자는 예(禮)를, 플라톤은 탁월성(德)을 직업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④ 순자와 플라톤 모두 사회적 분업 체계를 중시한다.
- ⑤ 순자와 플라톤 모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다.

12. 도덕주의 예술관이 심미주의 예술관에 대해 제시할 견해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글쓴이는 예술의 사명이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도덕주의 예술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의 '어떤 작가'는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예술 밖에서는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심미주의 예술관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도덕주의 예술관의 입장에서 심미주의 예술관에 대해 제시할 견해는 후자가 예술의 도덕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가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④ 도덕주의 예술관에 대한 설명이다.
- ②, ⑤ 심미주의 예술관이 도덕주의 예술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이다.

13. 셸러드 그릇 모델과 국수 대접 모델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국수 대접 모델, (나)는 샐러드 그릇 모델의 입장이다. 전자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각각의 문화를 대등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자는 주류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ㄱ), 후자는 각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한다(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입장 모두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ㄷ)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중시하는 것은 동화주의(同化主義) 모델이다.

14. 환경 윤리에 관한 여러 입장들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감정 중심주의자인 싱어이고, 을은 생태 중심주의자인 롤스톤이며, 병은 인간 중심주의자 칸트이다.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칸트만의 입장인 C에 해당한다(ㄷ).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만, 싱어는 꽤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 롤스톤은 지구의 모든 존재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는 싱어와 칸트만의 공통 입장인 D에 해당한다(ㄹ).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자 칸트와 감정 중심주의자 싱어에게 식물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지만 생태 중심주의자 롤스톤에게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ㄴ 감정 중심주의자 싱어와 생태 중심주의자 롤스톤만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15. 벤담과 롤스의 분배 정의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공리주의자인 벤담이고, 을은 현대 정의론의 대표자인 롤스이다.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기준으로,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분배 방식을 선택한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에서 정당화된다고 보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분배 방식 B를 지지한다. 이 분배 방식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110으로, 다른 두 경우의 70과 50보다 더 크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벤담은 중산층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
- ②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여 A나 B를 지지한다.
- ④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가 아닌 B를 지지한다.
- ⑤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여 A나 B를 지지하지만,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하여 B를 지지한다.

16. 언론 윤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확정 판결 이전의 피의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칫 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러한 보도가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그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제시문의 사례는 언론의 자유가 남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③ 제시문의 사례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사건 내용, 신원 등을 공개한 것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 ④ 제시문의 논점과 거리가 먼 진술이다.
- ⑤ 보도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와 관련이 적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격권 보호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17. 스포츠맨십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인터뷰를 하는 선수는 '상대의 불운을 이용해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과, '정정당한 승리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상대 선수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제도화된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에 따라'는 그림 3의 '규칙을 지키면서 ~이상으로'의 질문과 적절하게 호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인터뷰 선수는 '진정한 승리'와 '정정당한 승리'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경기에서의 놀이적 요소를 말하는 것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 ④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그림 3의 '신체적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의 질문과 적절하게 호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인터뷰 선수는 단순한 결과로서의 승리보다 정정당한 과정을 거친 승리를 중시한다.

18.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에는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이 담겨 있다. 현실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주목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정책에서 분쟁의 원인을 찾으며,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한 분쟁 억지를 주장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에서는 국내 정치에서와 달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⑤ 국제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국가 간에 도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현실주의는 전쟁을 도덕의 문

제로 보지 않는다.

19. 니부어의 사회 윤리 사상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사회 윤리 사상가인 니부어의 입장이며, <문제 상황> 속의 A는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즉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ㄱ). 그는 사회 갈등의 원인을 집단 간 권력 불균형에서 찾고 있으며(ㄴ),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설득과 함께 정치적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ㄷ).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A에게 조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니부어는 집단이 커질수록 그 집단은 이기적으로 되기 쉽고, 공동의 지성을 따르기가 어려워진다고 본다.

20. 불교와 유교의 자연관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인연(因緣)과 공(空)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 (나)는 하늘이 명한 성(性)을 따를 것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다. 만물이 무위(無爲)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사상은 도가 사상이므로, 이를 유교와 관련하여 진술한 ㉞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불교는 자연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본다.
- ② 불교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 ③ 유교는 하늘[天]을 도덕 원리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 ⑤ 불교와 유교는 모두 자연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相依] 조화롭게 어울리는[和諧]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